

경북자치경찰청,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

경주서 성과보고회·정책포럼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치안 실현을 목표로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3일 경주 라한 셀렉트에서 ‘2025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을 열고, 제2기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과제를 짚었다.

이날 행사는 ‘경북형 자치경찰 실질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추진성과가 소개됐다. 위원회는 공동체 중심의 협업 치안체계 확립,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생활·교통안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부 정책포럼에서는 함요상 대구대 교수(경찰행정학과)가 ‘경북형 자

치경찰 실질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직 자치경찰관이 자치경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시·도지사에게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의 생명과 안전은 지역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도민 중심의 행정·치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사무를 적극 추진해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